

TV 드라마가 재현하는 '혼외관계' - 전통적 가족주의와 현대적 욕망의 충돌

1990년대 이후 지상파 TV 드라마를 중심으로

김지영 건국대학교 언론학 박사*

김동규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교수**

본 연구는 '혼외관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사회적 수용이 과거에서 현재로 올수록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1990년대 이후 지상파에서 방영된 '혼외관계', 즉 불륜을 소재로 한 TV 드라마가 재현하는 혼외관계의 서사 구조를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표성 있는 드라마 23편을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토도로프(Todorov)의 통합체 분석과 레비스트로스(C. Lévi-Strauss)의 이항대립 구조에 기초한 계열체 분석으로 서사 분석을 시도하였다. 통합체 분석 결과 최근의 TV 드라마는 혼외관계를 중심으로 가정 유지 또는 가정 해체라는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혼외관계를 애정·돈·출세 등의 욕망의 표현, 배신한 상대방·자신을 능멸한 존재에 대한 복수의 수단, 아름다운 사랑과 우정, 가정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기제들과 여성/아내의 각성 기제 등으로 의미화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계열체 분석을 통해서도 혼외관계를 중심으로 남성 대 여성, 아내 대 여성의 대립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최근의 TV 드라마 속 혼외관계는 정상 가족으로 표상화되는 전통적인 가족주의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되면서도 이전 시기와는 달리, 혼외관계를 사적 감정 또는 이해할 만한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가치중립적이거나 긍정적 이미지를 추구하며 동원하는 차별성을 보여 주었다. 그와 동시에 가정이란 낭만적 사랑에 따라 형성되었음에도 제도적 가족에 편입하는 모습을 보이는 모순된 가치가 부딪히는 장이며, 아내를 통해 가부장제에 기반을 둔 '전통적 가치'와 낭만적 사랑에 기

* cutekuma@hanmail.net, 주저자

** kdg810@konkuk.ac.kr, 교신저자

받을 둔 '현대적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을 확인하면서 여성 정체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경제적 욕망을 추구하며 혼외관계를 저지르거나 아내를 멸시하는 남성을 통해 물질적 욕구만을 추구하고 내적 가치를 잃는 소비 사회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는 전통과 현대적 가치가 충돌하고 나아가 정서적 교류 등의 내적 가치와 경제적 욕망이 충돌하면서 혼외관계의 의미나 가정의 의미도 복잡하고 혼돈스러워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변화상을 TV 드라마의 서사를 통해 투영해 내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KEY WORDS TV 드라마, 혼외관계, 서사 분석, 낭만적 사랑, 정상 가족

1. 서론

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정치적 지형 변화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탈이념화된 문화화가 지향되기 시작하고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달러, 2016년에는 2만 달러를 돌파하였다. 또한 우리 사회는 빠르게 시장 논리와 소비 지향 사회로 변해 가면서, 개인의 관심사도 국가와 정치, 이념에서 개인과 문화, 레저로 변화하게 되었으며 문화 텍스트는 정치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결정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에 TV 드라마는 사회성과 이념성이 쇠퇴하고, 문화 오락적 도구이자 소비재로서 개별화와 다양화가 추구되었으며 물질의 풍요함과 일상적 즐거움을 전달하게 되었다(정영희, 2005, 152-159쪽).

특히 1990년대 후반에는 IMF를 겪으며 구조 조정과 명예퇴직 등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단위인 가정이 붕괴되는 현실을 맞이하였다. 경제 위기 속에서도, 결혼 이후에도 여성적 매력과 경제력을 가진 '미시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등 소비 사회를 향유하는 모습도 공존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의한 것인지 '혼외관계'를 소재로 하는 TV

드라마나 영화는 그 이전 시대와 차별화되기 시작하였다. 영화에서는 1995년 〈엄마에게 애인이 생겼어요〉, 1998년 〈정사〉, 1999년 〈해피엔드〉 등 기혼 여성이 혼외관계의 주체로 대두되는 내용이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한편 TV 드라마에서는 1996년 〈애인〉이 유부남과 유부녀의 불륜을 아름답게 묘사하며 높은 시청률과 함께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고, 이후 다수의 유사한 드라마를 양산하게 되었다. 즉, 1990년대 이후 혼외관계를 둘러싼 스토리에서 여성 주인공은, 과거와 달리 더 이상 가정에서 버림받고 눈물을 흘리는 비극의 여주인공만이 아닌 사랑의 주체로도 조명되기 시작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혼외관계는 죄의식에 대한 문제에서 일상적 자아와 여성의 정체감 문제로 넘어가게 되었다(황혜진, 2005, 89쪽).

혼외관계를 소재로 한 TV 드라마가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얼마나 분포해 왔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김지영·김동규, 2016), 1992년부터 2015년까지 지상파에서 방영된 TV 드라마 1,258편 중에서 총 189편이 혼외관계를 소재로 한 것이었다. 이는 해당 시기 제작된 전체 드라마 중 15%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시기별로는 1990년대 7%, 2000년대 16%, 2010년대 25%로 그 비중이 최근으로 올수록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대중적 정서를 담보로 유지되는 영화나 드라마가 그 시대의 욕구를 반영할 뿐 아니라 관객과 시청자의 기대치를 맞춰 가는 내러티브를 생산한다는 입장(임인숙, 2003, 4쪽) 또는 그 시대의 보편적 정서구조를 공유하는 공동체의 산물로서 TV 드라마 등의 대중문화 텍스트를 바라볼 때(정영희, 2005, 196쪽), 1990년대 이후로 혼외관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꾸준히 존재할 뿐 아니라 그 생각도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가 TV 드라마 등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1) 혼외관계는 불륜, 외도, 바람, 간통 등의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어 왔는데, 본고에서는 '혼외관계'라는 학술적 용어를 사용하려고 하며, 이에 대한 정의는 이론적 배경에서 다루고자 한다.

유추할 수 있다.

오늘날의 결혼과 연애가 상대방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낭만적 사랑에 기초하지만,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지는 그 사회의 지배적인 상식과 생각의 영향하에 있다. 그렇다면 이혼과 혼외관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선행 연구를 통해 이를 확인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TV 드라마는 각 시대적 상황을 바탕으로 혼외관계를 묘사하는데 시대별로 일정한 패턴을 보였다. 1960년대는 정(情), 효, 현모양처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혼외관계를 부도덕한 것이자 일시적인 것으로, 1970년대는 핵가족화와 자유연애론이 확립되기 시작하면서 혼외관계를 통한 삼각 애정 관계나 처첩 간의 갈등을 그리고, 1980년대는 성, 가정 파괴, 부권 상실 등의 사회상을 반영하며 장기적인 외도 관계로 인한 가정 내 갈등을 묘사하였다(배연정, 2004, 31-34쪽). 이렇듯 1960년대~1980년대까지 우리 사회의 변화에 따라 TV 드라마의 내용도 변해 왔으며 혼외관계를 통해 다루고자 하는 주제와 내용도 변화하였다. 그렇다면 1990년대 이후의 사회에서 TV 드라마가 묘사하는 혼외관계는 이전 시대와 구별되는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혼외관계는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가정을 위기로 몰아넣는 기제로서 탈관습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점과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불륜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점 때문에, 극적 소재로서 매력적이며 인기를 끌 수 있는 요인이 된다(원정현, 1996, 5쪽). 또한 혼외관계를 소재로 하는 TV 드라마는 그 시대의 가족이데올로기나 남녀관계 및 섹슈얼리티라는 젠더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정치사회학적 텍스트(김선영, 2016. 10. 9)이다. 이 점이 혼외관계를 소재로 하는 TV 드라마와 일반적인 남녀의 애정을 다룬 멜로드라마나 가족 간 갈등과 화해를 다루는 가족/홈드라마와 구별되는 특징이기도 하다. 본고는 이러한 주제를 다룬 기존의 연구들이 소수의 드라마의 텍스트 분석에 치우쳐있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보다 광범위한 드라마를 통해 1990년

대 이후의 혼외관계를 다룬 TV 드라마의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TV 드라마는 그 시대의 사회를 나름대로 해석하고 허구적으로 재구성한 사회문화적 구성물(김승현·한진만, 2001, 11쪽)”이라는 관점에서 ‘혼외관계’에 대해 우리의 인식과 사회적 수용이 과거에서 현재로 갈수록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1990년대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TV 드라마가 혼외관계를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오늘날의 드라마가 드러내는 혼외관계에 대한 패턴과 경향성을 확인할 것이다. 즉, 이전 시대의 TV 드라마가 보이는 경향성과의 차별점과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함으로써 오늘날 우리 시대가 보이는 TV 드라마가 반영하는 혼외관계와 부부와 가정에 대한 지배적인 생각이 무엇인지를 유추해 보고자 한다.

2. 기존 논의

1) ‘혼외관계’를 다룬 TV 드라마의 시대적 흐름

혼외관계는 통상적으로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자발적으로 육체적 관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지만(양다진·조희선, 2005; 이영화·이영숙, 2007), 혼외 관계를 성적인 문제로만 제한할 경우 정서적 관계를 중시하는 여성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Glass & Wright, 1992). 또한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정서적 교류를 갖는 ‘정서적 외도’ 역시 결혼생활을 위협하는 요소로 대두되었다(Glass & Wright, 1992; Harley, 2002). 따라서 본고에서는 혼외관계에 있어서 부부 관계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모든 불안 요소를 고려하여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의 동의 없이,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자발적으로 육체적·정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혼외관계로 정의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혼외관계를 다뤄 논란의 중심에 선 첫 TV 드라마는

1969년 MBC의 〈개구리 남편〉이다. 이후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하며 〈청춘의 뗏목〉, 〈모래성〉 등의 드라마에서 불륜과 혼외관계를 다루었다.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과 함께 방송윤리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거나 조기 중단이 될 정도로, TV 드라마에서 불륜과 혼외관계를 다루는 것을 부적절하게 여겨 왔다. 이 시기의 드라마에서 혼외관계는 일시적인 바람기로, 사랑과는 별개로 묘사되었다(배연정, 2004, 34쪽).

1970년대에는 MBC의 〈안녕〉, 〈후회합니다〉 등 외도와 사랑이 별개가 아니고, 제도적 결혼생활보다 애정이 더 중요하다는 내용의 드라마가 등장하였다(백미숙·강명구, 2007, 155-157쪽). 이 시기의 드라마에서 혼외관계는 남편의 외도에 대해 현모양처 이데올로기를 보여주는 여성의 모습이 보이거나 낭만적 사랑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사회에서의 향락적인 모습의 하나로 묘사되었다(배연정, 2004, 34쪽).

1980년대에는 TV 드라마에서 혼전 성관계나 이혼을 기제로 하는 긴장과 갈등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결혼 제도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깨뜨리는 것과, 불륜의 사랑을 위해 가정을 버릴 수 있다는 내용이 다루어졌다(백미숙·강명구, 2007, 165쪽). 198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시청률 경쟁이 격해지며 삼각관계를 다룬 멜로드라마나 불륜 드라마가 등장하기 시작했다(정영희, 2005, 130-137쪽). 그리고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외도의 상황을 통해 여성의 일·사랑·가족에 대한 문제를 다뤘으며, 이 시기의 외도는 사랑을 바탕으로 하였기에 지속적인 외도이며 결혼에 위협을 주는 요소로 작용했다(배연정, 2004, 34쪽).

1990년대 이후로는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결혼과 이혼이 개인의 선택으로 용인되기 시작하고, TV 드라마에서도 섹슈얼리티·성정치학·권력 관계·가족 제도의 변화가 반영되었다(배연정, 2004, 33-34쪽).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애인〉이 사회적으로 허용되고 이슈화되는 현상이었다(원용진, 1997, 108-111쪽). 이후 아직도 여자인 아내를 혼외

관계의 대상으로 설정하거나 혼외관계를 운명적인 것이자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는 것으로 묘사한다. 나아가 혼외관계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자 사적 영역의 문제이며, 부부 관계나 자녀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다루어진다(배연정, 2004, 35쪽). 더욱이 혼외관계 주체로 여성이 늘어나고 혼외관계의 결과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혼외관계를 통한 낭만적 사랑 찾거나 그로 인한 이혼으로 자기정체성 확립의 결과 사회적 성공을 이루는 등의 내용으로 다양해졌다(김영성, 2015, 64쪽). 또한 그 경향성은 크게 세 가지 갈래를 갖는다. 그 하나는 전통적 가족 이데올로기로의 봉합으로 남편의 혼외관계는 생물학적 차이, 단순한 일탈, 실수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면죄부를 부여받는다. 다른 하나는 낭만적 사랑의 쟁취와 가족이데올로기에 함몰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런데 낭만적 사랑으로 불행한 결혼생활의 보상을 받는 경우는 결국 가부장제 복원에 머무른다는 한계, 주체적 삶을 선택하여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경우는 가족 내 성 역할을 포기하거나 지우는 행위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부부 사이의 실존적 관계 맺음을 실천하여 이상적인 가족의 복원을 제시하는 드라마가 나타나고 있다(김영성, 2015, 81쪽).

1990년대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진 이래로 2005년에는 신자유주의가 대두되면서 경제 구조가 변화하고 포스트페미니즘 텍스트가 도입되었으며, 호주제 폐지 등 양성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여러 법조항이 폐지되었다(이화정, 2011, 120쪽).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기존의 전형적인 여성상을 파괴하는 MBC의 〈내 이름은 김삼순〉(2005), 〈히트〉(2007) 등과 같은 드라마가 나타났다. 그 뿐만 아니라 기존의 TV 드라마에서의 혼외관계의 문제를 부부의 갈등과 화해, 이혼과 가정 유지로 풀어냈다면 2000년대 이후로는 여기에 남편에 대한 응징과 복수, 내연녀에 대한 복수, 당당한 이혼 요구와 이혼녀와 미혼남의 사랑 등 점차 자극적인 스토리 전개가 이루어지고 심할 경우 가족·부부 간의 폭력과

폭언, 살인 교사까지 보이는 드라마가 등장하였다(김수아, 2014, 147-149쪽).

1960년대에는 TV 드라마에서 혼외관계를 다루는 것을 금기시했다면, 오늘날에는 양산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내용 면에서는 과거보다 오늘날이 더욱 과격하고 파격적인 내용이 다루어지는 등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가족과 부부의 의미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TV 드라마 텍스트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변화상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2) 낭만적 사랑과 합류적 사랑: 한국의 가족과 결혼의 특수성

‘낭만적 사랑’이란 ‘선택을 통해 확립되는 자아 존중감’을 전제로 하며, 성인 남녀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해 가고, 부부는 가정의 공동 기획을 서로의 동의하에 만들어 간다(Illouz, 2011/2013; Beck & Beck-Gernsheim, 1990/1997). 이처럼 주체적 인격체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서구 산업 국가들과 달리 산업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진 한국 사회에서의 연애는 외부의 위기 상황이나 자기 존재 의미가 불안정한 절망적인 상황의 도피처로서 기능하면서²⁾(나윤경 외, 2009, 393쪽), 한국의 낭만적 사랑은 서구의 근대화 과정에서 태동한 낭만적 사랑과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다. 또한 한국의 결혼은 낭만적 사랑의 실천으로서의 연애가 아니라 낭만적 사랑의 갈구 수단이 되었으며, 그 상태에서 제도적 결혼 관계에 들어간 것이다(나윤경 외, 2009).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에 대하여 특정 계층의 가족 형태만을 정상 가

2) 특히 사회경제적 자립의 길이 제한된 여성에게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다. 별다른 삶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거나 달라질 것 없어 보이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여성에게 있어서, 자신의 삶을 확장시킬 수 있게 하는 대상으로서의 이성, 즉 낭만적 사랑에 대한 갈구로 연애와 결혼을 한다는 것이다(나윤경 외, 2009, 393쪽).

족으로 보는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³⁾가 작동하기 때문에(이재경, 2004, 231-234쪽), 부부 관계 및 애정 관계에 대하여 정해진 규범에 따라 진행 되지 않는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또한 서구 산업 국가들의 결혼이 주체적 인격체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결혼 당사자를 둘러싼 부모의 이해나 남성의 부양 책임과 여성의 내조 책임이라는 젠더 역할 등이 결혼의 추진체 역할을 해 왔다(나윤경 외, 2009, 399쪽).

그런 이유에서인지 한국 사회에서 낭만적 사랑이나 성적 만족도보다는 ‘처의 가사·육아노동’과 ‘남편의 애정에 대한 만족도’(함인희, 2004), 그리고 부부 사이보다는 자녀를 둘러싼 ‘가족주의화’ 된 친밀감(이성은, 2006)이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외관계가 부부 관계에 가장 타격을 주는 사건으로 인식한다는 점은, 비록 성이 부부 사이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지만 부부 간 배타적 성적 권리는 마땅히 지켜야 할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성은, 2006). 그런데 합법적으로 성생활이 이뤄질 수 있는 가정은 무성적인 공간이 되어 가고 기혼자들은 혼외관계를 통한 성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대해 가능성과 허용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이성은, 2006; 함인희, 2004), 한편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성의 의미는 포장되고 상품화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결혼의 현주소이다.

우리나라의 결혼 과정에서 ‘낭만적 사랑으로 인한 선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혼 당사자를 둘러싼 부모의 이해나 남성의 부양 책임과 여성

3) 정상 가족이라는 개념에는 ‘가족이란 이리이러해야 한다’는 규범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그 범주에 들지 못할 경우 비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든다. 독신가구, 동거 부부, 한 부모 가족, 전업주부 남편, 재혼으로 구성된 가족, 동성 가족, 무자녀 가족 등은 정상 가족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정상적이거나 특이한 상황 또는 결손 상황, 부끄러운 문제 상황으로 인식하는 것이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의 부정적 폐해다(함인희, 2000, 47-49쪽).

의 내조 책임이라는 젠더 역할 등이 결혼의 추진체 역할을 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결혼생활에는 ‘낭만적 사랑’ 외에도 이러한 추진체들에 의한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그 요건 중에는 ‘자녀’가 있는데, 한국에서 ‘자녀’의 존재는 부부와 가족의 정상성을 확인시켜 주고 부부의 결혼생활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결혼생활의 정상성을 유지하고 해체시키는 요소가 오롯이 ‘낭만적 사랑’에 기반을 두지 않기 때문에 혼외관계는 부부 관계를 끝내거나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나윤경 외, 2009, 399쪽). 즉, 현재 부부 관계에서 친밀감과 위안을 얻지 못하지만 가족에 대한 역할적 ‘책임감’과 ‘배려’로 가정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은, 혼외관계를 통해서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있다. 이런 이들에게 결혼은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법적인) 제도’로서 기능하고, 혼외관계는 자신의 세계관, 감성, 경험을 공유하고 위안을 얻는 것으로서 기능한다(나윤경 외, 2009, 402-406쪽).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 결혼생활이란 일종의 ‘스펙’과 비슷한 개념으로, 외도라는 도움이 필요할 만큼 가족은 친밀감과 위로·이해는 부재하며 오로지 기능적이며 도구적 존재로 전락하였다는 관점도 있다. 이에 결혼 밖에서 추구되는 친밀감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자녀의 계층 상승이나 자기계발 등에 필요한 경제적 유대감밖에 남아 있지 않은 한국의 가족과 결혼에 대해 재고해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나윤경 외, 2009, 407-408쪽).

그런데 ‘낭만적 사랑’은 본래 남성과 여성의 평등주의적인 경향을 갖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여성으로 하여금 가정에 예속되도록 만들어 왔다. 이에 기든스(Giddens)는 대등한 조건을 바탕으로 한 감정의 교류를 가정하고, 그것이 강해지면 개개인의 애정이 순수한 관계성의 원형에 가까워질 것이라는 ‘합류적 사랑(confluent love)’을 제안하였다. 합류적 사랑을 하게 되면, 친밀한 관계가 진전되는 정도에 따라, 즉 상대방에 대해 얼마만큼 관심과 요구를 주고받았으며, 그에 따라 얼마나 상대

방에게 무방비해질 수 있는지에 따라 사랑이 진전된다. 또한 합류적 사랑에서의 두 사람의 순수한 관계는 머지않아 끝날 것이라는 통지가 있기 전까지 두 사람의 관계를 충분히 지속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서로가 인정할 때까지 유지된다(Giddens, 1992/1995, 95-96쪽). 이러한 ‘합류적 사랑’은 가부장적 부부 관계가 아니라 평등 관계를 지향한다. 그런 의미에서인지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가족 위기에 대한 하나의 처방으로 부부 평등의 가치를 들었고, 이에 생계별이 분담을 포함시키지 않은 성별 분업과 성 평등이 이루어진 “평등 부부”를 선정하여 시상하기도 하였다(박혜경, 2011, 83쪽).

그런데 IMF를 계기로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게 된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은 생활의 구심으로써 가족 연대가 강조(박혜경, 2001, 86쪽)되는 한편, 현실의 가정은 자녀들을 중산층에서 탈락시키지 않으려는 생존을 위해 노력하는 경제적 공동체로 전락하였다(나윤경 외, 2009; 이재경 외, 2006; 조주은, 2008; 황정미, 2005). 그리고 경제 위기로 인하여 가장이 명예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그 지위와 권위가 위협해지면서, 경제 위기를 가족의 문제로 치환하는 담론이 등장하였다(박혜경, 2011, 82쪽) 남편의 실직이 가족의 위기로, 맞벌이와 이혼율의 증가가 인간관계에 의한 것으로 묘사된 것이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개인화 또는 가족 해체 현상이 나타나며, 이것이 부부 관계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다(Beck & Beck-Gernsheim, 1990/1997).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이혼을 이기심의 발로로 바라보고, 여성의 성 평등 요구나 남녀 간의 갈등을 무책임한 것이자 가족애와 남성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담론이 형성되었다(박혜경, 2011, 86쪽).

한편으로는 경제적·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위기를 맞은 남편들에게 구조적 권력을 부여하고자 1990년대 이후로 남성의 기 살리기 담론이 이어지고(박혜경, 2011, 91쪽),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부부 관계를 묘사한 TV 드라마가 제작되거나(장

하경, 1998, 168쪽), 가족 내에서 강하고 희생적인 어머니상과 불쌍하고 위로가 필요한 존재로서의 아버지상이 등장하는 TV 드라마도 제작되었다(박혜경, 2011, 91쪽). 그렇지만 가족의 개념 자체가 변화하면서 최근의 TV 드라마에서는 불륜을 통해 전통적 가족 신화의 허위성을 고발하며 가족의 위기와 해체를 그리고 있다(김영성, 2015, 64쪽).

이상으로 볼 때 한국의 산업화 과정과 가족주의는 밀접한 연관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흐름에 따라 가족의 담론은 변화해 왔다. 1990년대 이후 오늘날 우리나라의 가족은 대가족보다는 핵가족, 세대 관계보다는 부부애를 강조하며,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주의와 젠더 평등의 이념이 부분적으로 결합하고, 성 평등 담론과 부부애, 가정적인 아버지상과 아내의 지위 상승의 모습을 보인다. 결국 가족주의는 경제 위기로 인한 불안정한 현실을 극복하는 처방으로 제시되었으며,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사회공동체보다 개인과 가족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박혜경, 2011, 96-98쪽). 이러한 현실은 혼외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부 관계와 여성 묘사 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논리를 변화시켜 왔다.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의 TV 드라마가 가진 경향성을 통해, 혼외관계와 부부와 가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생각을 알아보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1992년 지상파 상업방송인 SBS가 출범한 이래 현재까지 지상파에서 방영된 TV 드라마 중에서 ‘혼외관계’를 다룬 드라마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혼 남녀의 혼외관계의 문제를 자세하게 묘사하였거나 부부 간 갈등 문제에 있어 의미 있는 서사 구조

표 1. 서사 분석 대상 드라마 리스트

	드라마 제목	시청률	방송사	시기	방영 형태		내용
					주간연속	수목	
1	폭풍의 계절	52.10%	MBC	1993.5.12~1993.12.30	주간연속	수목	이민희 연출, 최성실 극본, 김희애, 최진실, 도지원 외, 66부작
2	이들의 여자	49.70%	MBC	1994.10.19~1995.4.13	주간연속	수목	이민희 연출, 최성실 극본, 채시라, 정보석, 고수영 외, 52부작
3	애인	36.20%	MBC	1996.9.2~1996.10.22	주간연속	월화	이창순 연출, 최연지 극본, 황신혜·유동근·이응경 외, 16부작
4	푸른 안개	10%	KBS2	2001.3.24~2001.5.27	주말연속	토일	표민수 연출, 이금림 극본, 이경영·이요원·김미숙 외, 20부작
5	위기의 남자	30.70%	MBC	2002.4.8~2002.6.3	주간연속	월화	신호근, 이민희 연출, 이선미, 김기호 극본, 김영철, 황신혜, 배종옥 외, 17부작
6	애정의 조건	44.30%	KBS2	2004.3.20~2004.10.10	주말연속	토일	김종창 연출, 문영남 극본, 한기인, 채시라, 지성 외, 60부작
7	두 번째 프리포즈	31.10%	KBS2	2004.9.8~2004.11.18	주간연속	수목	김평중 연출, 박은령 극본, 오연수, 김영호, 허영란 외, 22부작
8	부모님전상서	34.40%	KBS2	2004.10.16.~2005.6.5	주말연속	토일	정해룡, 정을영 연출, 김수현 극본, 김희애, 허준호, 장현성 외, 68부작
9	장밋빛 인생	41.10%	KBS2	2005.8.24.~2005.11.10	주간연속	수목	김종창 연출, 문영남 극본, 최진실·손현주·이태란 외, 24부작
10	소문난 칠공주	44.40%	KBS2	2006.4.1.~2006.12.31	주말연속	토일	배경수 연출, 문영남 극본, 김혜선, 이태란, 최정원 외, 80부작
11	내 남자의 여자	36.80%	SBS	2007.4.2~2007.6.19	주간연속	월화	정을영 연출, 김수현 극본, 김희애, 김성중, 배종옥 외, 24부작
12	조강지처클럽	40.20%	SBS	2007.9.29~2008.10.5	주말연속	토일	손정현 연출, 문영남 극본, 김혜선, 오현경, 김해숙 외, 104부작

	드라마 제목	시청률	방송사	시기	방영 형태	내용
13	아내의 유혹	37.50%	SBS	2008.11.3.~2009.5.1	일일연속	오세강 연출, 김순옥 극본, 장서희·변우민·김시형 외, 129부작
14	내조의 여왕	30.60%	MBC	2009.3.16~2009.5.19	주간연속	고흥선 김민식 연출, 박지은 극본, 김남주, 오지호, 이해영 외, 20부작
15	재봉왕 김탁구	50.80%	KBS2	2010.6.9~2010.9.16	주간연속	이정삼 이은진 연출, 강은경 극본, 윤시윤, 유진, 이영아 외, 30부작
16	결혼해주세요	34.80%	KBS2	2010.6.19.~2010.12.26	주말연속	박민영 연출, 정유경 극본, 백일섭, 고두심, 김지영 외, 56부작
17	사랑을 믿어요	31.20%	KBS2	2011.1.1~2011.7.31	주말연속	이재상 연출, 조정신 극본, 송재호, 신우영여, 이재룡 외, 56부작
18	오작교 형제들	36.30%	KBS2	2011.8.6~2012.2.19	주말연속	기민수 연출, 이정신 극본, 백일섭, 김지옥, 유이 외, 58부작
19	넝쿨째 굴러온 당신	45.30%	KBS2	2012.2.25~2012.9.9	주말연속	김형석 연출, 박지은 극본, 김남주, 유준상, 윤여정 외, 58부작
20	왕가네 식구들	48.30%	KBS2	2013.8.31.~2014.2.16	주말연속	진형욱 연출, 문영남 극본, 이태란, 오현경, 오만석 외, 50부작
21	따뜻한 말 한마디	11.30%	SBS	2013.12.2.~2014.2.24	주간연속	최영훈 연출, 허명희 극본, 한혜진, 지진희, 김지수 외, 20부작
22	전설의 마녀	31.40%	MBC	2014.10.25~2015.3.8	주말연속	주성우 연출, 구현숙 극본, 한지혜, 하석진, 고두심 외, 40부작
23	내 딸, 금사월	34.90%	MBC	2015.9.5~2016.2.28	주말연속	백호민, 이재진 연출, 김순옥 극본, 전인화, 백진희, 윤현민 외, 51부작

를 가진 드라마⁴⁾, 또는 혼외 관계를 주제로 하면서 시청률 30% 이상을 기록한 것과 시대적 이슈가 된 드라마를 선별하였다. 그 결과 서사 분석의 대상으로 총 23편(이상 시대 순 정렬)이 선정되었다.

여기서 ‘혼외관계’란 “남성 또는 여성이 기혼 상태에서 다른 이성과 정서적·육체적 관계를 가져서 배우자와 갈등을 빚는 상태”로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 따라서 연인 관계를 깨고 다른 이성과 교제·결혼하는 내용은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과거 혼외관계였던 관계는 현재 시점에서 배우자와 갈등을 빚는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연구 대상에서 제외된다.⁵⁾ 또한 KBS <부부클리닉-사랑과 전쟁>과 같은 옴니버스 형식의 드라마와 명절에 방영되는 특집 단편극은 제외하였다. 혼외관계에 대한 조작적

4) 시청률이 낮지만 선택한 드라마는 KBS2의 <푸른 안개>와 SBS의 <따뜻한 말 한마디>이다. <푸른 안개>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40대 중반의 남자와 23세 미혼 여성의 사랑이 주 내용이며, ‘불륜’ 외에도 ‘원조교제’, ‘불륜이냐, 사랑이냐’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던 드라마다. 2015년 <프로듀사>, 2008년 <그들이 사는 세상> 등의 히트작을 연출한 표민수PD의 작품으로, 불륜·막장 드라마가 아니라 ‘중년의 자아 찾기’를 주제로 표방하였다. 이 드라마의 시청률은 10% 안팎으로 낮은 편이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50대 이상 중년 남녀의 시청률이 높아 전체 시청자의 약 37%를 이들이 차지했다고 하며, 특히 기존의 드라마가 ‘바람난’ 남편을 ‘억울한’ 아내의 시각에서 바라본 반면, <푸른 안개>는 ‘사랑에 빠진’ 중년 남자의 시각에서 다뤄 남성의 공감을 얻었다는 점에서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강수진, 2001. 4. 26). <따뜻한 말 한마디>는 ‘두 부부의 가정 위기 회복 과정을 통해 부부란 무엇이며, 행복한 가정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공감과 감동을 함께 공유하는 드라마’라는 제작 의도를 표방하였으며, 기혼 남녀의 불륜으로 인해 두 가정이 겪는 갈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AGB닐슨 미디어 리서치 코리아에서 집계한 최고 시청률은 11.3%에 그쳤지만, 베드신 등 선정적인 내용을 피하고 부부 관계를 재점검하는 계기로 불륜을 다루었다는 점, 부부가 상처를 치우해 가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림으로서 웰메이드 작품이라고 평가를 받았다(이영광, 2014. 2. 25).

5) 예를 들어 2002~2003년 방영된 MBC의 <인어아가씨>의 경우, 조강지처를 버리고 새 가정을 꾸린 아버지와 그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자란 전처의 딸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인데, 혼외관계가 과거의 사건이고 드라마는 그 혼외관계자들의 자녀가 사는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드라마는 본 연구 대상에서 혼외관계를 다룬 드라마로 분류되지 않는다. 또한 1978년 MBC에서 방영하여 1999년 리메이크 된 <청춘의 덫>의 경우도 불륜 드라마로 자주 거론되기는 하나, 혼전 동거 관계에서 남자 주인공이 다른 여성과 결혼하여 배신을 당한 내용은 본 연구에서는 혼외관계로 분류하지 않는다.

정의에 따라 사극에서의 결혼과 배우자의 의미가 현대와 다르므로 사극 역시 제외하였다.

2) 연구 방법

구조주의 서사학은 문학적 서사물에서부터 모든 장르의 서사물에 보편적으로 내재하는 초문학적 구조물을 분석해 왔는데(박진, 2003, 131쪽), 텔레비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은 서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서(Allen, 1992/1994, 30쪽), 서사 이론은 TV 드라마의 서사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분석틀이다. 서사학(narratology)에서는 모든 서사물은 매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유하는 공통의 구조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서사물 자체 또는 어떤 텍스트를 서사화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밝히는 것이 서사 분석의 목적이다(Charlman, 1978/1999, 20쪽; 한용환, 2002, 27쪽).

본 연구에서는 토도로프(Todorov, 1997)의 통합체 분석에 기초하여 시퀀스 분석을 시도하였다. 토도로프는 텍스트를 논리적·시간적 순서로 조직된 유형과 공간적 순서에 따라 조직된 유형으로 나누며, 그 텍스트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중요시한다. 논리적·시간적 순서로 이루어진 텍스트의 유형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텍스트의 단위 요소들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맺는 '신화적 이야기'와 어떤 일반적인 개념의 중개를 통해서만 텍스트의 부분들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이념적 이야기'이다(박진, 2003, 139-140쪽). 토도로프의 시퀀스 분석은 서사물의 시작과 끝에 있는 두 안정 상태의 속성을 비교함으로써, 안정을 혼란시키거나 다시 안정을 찾아주는 힘이 무엇인지를 알아낸다. 즉, 이야기 구조와 신화의 구조를 안정과 조화의 상태 - 갈등에 의한 불안정의 상태 - 안정성의 회복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마지막의 회복 단계는 영웅이나 주인공의 노력에 의한 것인데, 처음의 조화나 안정성과는 차이가 있다. 즉, 조화와 안정성이 한번 깨지면 그것을 되돌리는 데에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

하고, 사회 구성원들은 그러한 노력에 해당하는 교훈을 얻게 됨으로써 조화와 안정성의 소중함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갈등을 일으키고 조화와 안정성을 깨는 힘은 사회적으로 일탈된 것, 배척되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이러한 이야기 구조는 사회에서 어떤 가치와 사람이 부정적으로 배척되어야 하고, 어떤 가치와 사람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는지를 알게 해 준다(원용진, 2000, 154-155쪽). 즉, 서사물의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심훈, 2005, 298쪽).

또한 이러한 통합체 분석을 바탕으로 드라마 내의 이항대립 쌍을 도출해냄으로써 계열체적 구조를 파악할 수 있으며, 계열체적 구조를 통해 드라마 속에 함축된 이데올로기 및 신화의 의미 구조를 유추해 낼 수 있다. 구조주의적 시각에 따르면 이항대립적인 사고 과정은 인간의 두뇌가 작동되는 기본 방식이며, 이항대립의 구분에 의한 현실 인식은 어느 문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문화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모든 범주화 과정에는 이항대립의 구조가 전제되어야 하며, 구조주의 분석이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다. 구조주의가 사용하는 이항대립 구조의 원리는 언어를 비롯한 사회문화적 현상의 분석에서 계열체적 차원이 통합체적 차원보다 더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박정순, 1995, 376-377쪽). 이러한 이항대립 연구는 대립쌍들이 어떻게 기호 체계에 의해 구성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들 대립쌍들은 문화적으로 개입된 사회적 가치들이나 이데올로기적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황인성, 1996, 37쪽). 본 연구는 계열체 분석에서 레비스트로스(C. Lévi-Strauss)의 신화의 심층 구조 분석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레비스트로스의 이항대립 개념은 계열체 분석에서도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것이다. 소쉬르의 기호학에서 파생된 레비스트로스의 이항대립 분석은 이야기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은 대립적인 성질을 찾아낸다. 그리고 그 성질을 통해 헤게모니와 이데올로기 신화 등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관념적 대상을 담론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다(심훈, 2005, 297쪽).

표 2. 서사 분석 내용

분석 구분	통합체 분석 (시퀀스 분석)	계열체 분석 (이항대립)
분석 내용	TV 드라마 속 부부 갈등 해결의 원리를 통해 표출되는 '혼외관계의 의미'	TV 드라마 속 혼외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등장인물들의 긍정적 가치와 부정적 가치
도출 내용	혼외관계들 다룬 TV 드라마의 경향성 TV 드라마 속 가정·부부에 대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으로 삼은 23개의 TV 드라마를 혼외관계를 중심으로 통합체와 계열체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합체 분석을 통해 TV 드라마 서사 속에서 혼외관계를 둘러싼 갈등 구조를 검토함으로써 드라마 속 갈등 해결 논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TV 드라마가 갈등 해결 논리에 따라 어떻게 혼외관계를 규정하는지, 나아가 가정과 부부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즉, 드라마 속 혼외관계가 상징하는 의미와 가정과 부부에 대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계열체 분석을 통해 혼외관계로 인해 대립관계가 된 부부에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항대립 쌍을, 남편에 의해 대립관계가 된 여성들 사이에서 아내와 내연녀라는 이항대립 쌍을 도출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즉, TV 드라마가 혼외관계를 통해 드러내는 대립적 가치를 확인함으로써, 혼외관계 오늘날의 가정과 혼외관계에 대하여 드라마가 제시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상의 과정에서 1990년대 이후 오늘날의 드라마가 드러내는 혼외관계에 대한 패턴과 경향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드라마가 말하고자 하는 일반론, 즉 우리 사회가 가진 혼외관계와 부부와 가정에 대한 지배적인 생각이 무엇인지를 유추해 보고자 한다.

4. 분석 결과

1) 통합체 분석: TV 드라마 속 혼외관계의 의미

연구 대상으로 한 TV 드라마 총 23편에서는 공통적으로 ‘혼외관계의 시작 → 혼외관계의 진행과 발각 → 부부 갈등의 심화와 이혼의 위기 → 혼외관계의 종결 또는 부부 갈등의 종결’이라는 기승전결 서사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서사 속에서 혼외관계를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안정 → (힘) → 불안정 → (힘) → 안정’의 구도가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처음의 안정을 1로, 마지막의 안정을 2로 설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처음과 마지막의 안정이 다른 속성을 갖기 때문이다.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가정이라는 ‘안정1’ 상태에서 이야기는 시작하며, 우연한 기회에 기혼자가 다른 이성과의 혼외관계를 가지고 그것이 발각되어 이혼의 위기에 봉착하는 ‘불안정’ 상태를 거친다. 마지막은 각각의 부부가 이혼/재결합/유지되는 갈등이 해결 및 봉합되는 ‘안정2’ 상태로 마무리된다. 그런데 이때 비록 부부 관계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등장인물 간 관계의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안정1’과 구별되어야 한다. ‘안정1’에서 ‘불안정’으로 유도하는 ‘힘’은 혼외관계이며, ‘불안정’에서 ‘안정2’로 유도하는 ‘힘’은 부부 간의 관계 개선 노력 또는 부부의 갈등 심화이다.

혼외관계로 인해 가정이 벼랑 끝 위기를 맞이했다가 부부의 관계 개선으로 가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1990년대까지의 많은 드라마가 보여 준 전형적인 구도이다. 이러한 구조의 드라마는 총 9개 드라마 12쌍의 부부로, <폭풍의 계절> 현우-진희 부부, <애인> 운오-명애 부부와 우혁-여경 부부, <위기의 남자> 준하-나미 부부, <장밋빛 인생> 성문-순이 부부와 정도-장미 부부, <내조의 여왕> 달수-지애 부부, <결혼해주세요> 종대-순옥 부부, <사랑을 믿어요> 동훈-혜진 부부, <왕가네 식구들> 세달-호박 부부, <따뜻한 말 한마디> 재학-미경 부부와 성수-은진 부부가 있다.

그림 1. 통합체 구조 1: 가정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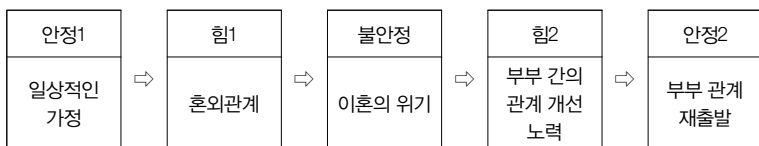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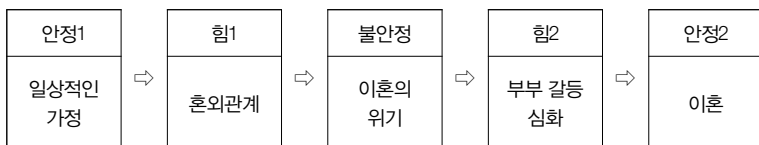


그림 2. 통합체 구조 2: 가정 해체



그 외에 형식적으로 가정을 유지하면서 혼외관계로 인한 찢값을 치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2개 드라마 2쌍의 부부로 <제빵왕 김탁구>의 일중-인숙 부부, <전설의 마녀> 태산-단심 부부가 있다.

한편 혼외관계로 제기된 부부의 문제가 갈수록 심화하면서 이혼에 이르는 경우도 많은 드라마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구조에서는 혼외관계를 통해 가정과 부부의 의미를 되새기지만, 부부 사이에 정서적 공감 없이 형식적 가정을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관점에서 가정을 해체함으로써 가정의 의미를 역설한다. 또는 혼외관계가 가정 해체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선택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보다 주체적인 부부 관계나 남녀 관계가 설정되면서 이상적 부부/가정의 모습을 제시한다.

전자는 총 8개 드라마 8쌍의 부부로 <아들의 여자> 태옥-숙향 부부, <위기의 남자> 동주-금희 부부, <부모님 전상서> 창수-성실 부부, <내 남자의 여자> 준표-지수 부부, <아내의 유혹> 교빈-애리 부부, <내조의

여왕) 태준-소현 부부, 〈오작교 형제들〉 인호-윤숙 부부, 〈내 딸, 금사월〉 만후-득예 부부가 있다.

후자는 9개 드라마 11쌍의 부부로 〈푸른 안개〉 성재-경주 부부, 〈애정의 조건〉 정한-금과 부부, 〈두 번째 프리포즈〉 민석-미영 부부, 〈소문난 칠공주〉 송국-덕칠 부부, 〈조강지처클럽〉 기적-복수 부부와 길억-나미 부부와 원수-화신 부부, 〈아내의 유혹〉 교빈-은재 부부, 〈결혼해주세요〉 태호-정임부부, 〈넝쿨째 굴러온 당신〉 남구-일숙 부부, 〈왕가네 식구들〉 민중-수박 부부가 있다.

이상의 모든 경우에서 TV 드라마는 표출하고자 하는 주제를 위해 갈등 구조를 해결하는 원리를 제시하면서 그에 따라 혼외관계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통합체 분석을 바탕으로 총 23편의 TV 드라마의 서사 속 혼외관계에 함축된 의미를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TV 드라마 속 혼외관계는 (1) 욕망의 표현, (2) 복수의 수단, (3) 아름다운 사랑과 우정, (4) 가정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기제, (5) 여성/아내의 각성 기제로 구별될 수 있다.

(1) 애정, 돈, 출세 등의 욕망의 표현

각각 애정에 대한 강한 욕망 또는 사회·경제적 지위, 돈에 대한 집착 등으로 혼외관계를 갖는 경우다. 이에 해당하는 드라마는 MBC 〈폭풍의 계절〉, SBS 〈내 남자의 여자〉·〈아내의 유혹〉, KBS2 〈제빵왕 김탁구〉·〈오작교 형제들〉·〈왕가네 식구들〉, MBC 〈전설의 마녀〉이다.

〈폭풍의 계절〉의 홍주와 〈내 남자의 여자〉의 화영은 행복한 가정을 가진 친구(또는 친구와 다름없는 사촌)의 남편을 유혹한다. 하지만 결국 이들은 혼외관계를 청산하는데, 홍주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던 중 사망하고 화영은 가정을 못 잇는 준표에게 상처를 받고 미국으로 떠난다. 〈아내의 유혹〉의 애리는 성공과 인정의 욕구를 가진 여성으로, 부잣집 도련님인 교빈을 짝사랑하여 아이를 임신한다. 훗날 이를 안 교빈이

그녀를 프랑스로 보내 버린 뒤 은재와 결혼하고, 프랑스에서 메이크업아티스트로 성공하여 귀국한 애리는 교빈을 유혹하여 이혼을 시킨다. <제빵왕 김탁구>의 인숙은 사랑 없는 결혼 속에 남편의 부하직원 승재와 밀회를 즐기며 끝내 자신이 원하는 지위는 지켰지만 주변 가족이 모두 곁을 떠나고, 인숙을 위해 범죄까지 서슴지 않은 승재도 감옥에 간다. <오작교 형제들>의 윤숙은 경제적 욕망을 추구하고자 재벌 남편을 두지만 남편의 부하직원 김 실장과 혼외관계를 가지며 남편을 배신한 후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왕가네 식구들>의 수박은 평소 남편 민중에게 남성적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여성적 매력에 자만하고 있던 중,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자 옛 연인과 불륜에 빠진다. <전설의 마녀>의 강태산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앵란의 남편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녀를 첩으로 두지만, 앵란은 끝내 태산에 대한 복수를 하고 태산은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

이상 살펴보듯이, 공통적으로 혼외관계를 주도한 사람은 정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결핍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결핍을 메우길 간절히 원한다. 그 결과 기혼자인 이성과 혼외관계를 갖게 되고, 혼외관계 대상자의 배우자에게 깊은 상처를 준 뒤 비극적 결말을 맞는다. 결국 혼외관계의 주체는 안정적인 가정·안정적인 경제권·성적인 욕망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며 가해자이자 권선징악의 대상이 된다. 또한 혼외관계 당사자들에게 상처받은 배우자들은 가정을 수호하는 사람으로서, 응원 받아야 할 사람이자 피해자로 설정된다. 이로 인하여 혼외관계는 부정적인 것으로 구체화된다.

(2) 배신한 상대방, 자신을 능멸한 존재에 대한 복수의 수단

여성에게 모멸감을 주는 상대가 등장하고 여성이 이들에 대한 복수의 수단으로서 혼외관계를 갖는 경우다. 모멸감을 주는 상대는 바람이 나서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 또는 결혼을 반대하며 모욕을 주는 아들의 어머니

등이다. 이에 해당하는 드라마는 MBC 〈아들의 여자〉, SBS 〈아내의 유혹〉, MBC 〈내 딸, 금사월〉이다.

〈아들의 여자〉의 채원은 몰락한 집의 딸이라는 이유로 남자의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자 그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 남자의 형을 유혹한다. 〈아내의 유혹〉은 혼외관계를 저지른 여성이 두 명 나오는데, 그중 은재가 여기에 해당한다. 은재는 애리와 교빈의 혼외관계로 인하여 목숨을 잃을 뻔한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그녀는 철저한 복수의 화신이 되어 교빈을 유혹하고 애리와 교빈을 이혼시킨다. 〈내 딸, 금사월〉의 득예는 집안의 재산을 노린 남편에 대한 복수를 기도하며 첫사랑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진다.

이상 공통적으로 혼외관계를 주도한 사람은 자신에게 수모를 준 상대를 잊지 않고 찾아가 복수를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상대방에게 그가 가진 안정적인 가정에 혼란을 야기하고 파괴함으로써 복수를 성취한다. 따라서 이들은 혼외관계를 저지르는 가해자이지만 궁극적으로 피해자로, 그들이 복수하는 대상이 가해자로 설정이 되어 있다. 즉, 시청자들이 이들의 복수(혼외관계)에 대하여 일정 정도 동조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혼외관계는 가치중립적이라 할 수 있다.

(3) 아름다운 사랑과 우정

힘들고 고단한 결혼생활, 애정이 없는 형식적 가정 등 결핍을 가진 기혼자들이 우연히 자신을 배려하는 이성과 만나 사랑과 우정의 중간에서 아슬아슬한 관계를 그린 경우이다. 이에 해당하는 드라마는 MBC 〈애인〉, KBS2 〈푸른 안개〉, MBC 〈내조의 여왕〉, KBS2 〈사랑을 믿어요〉, SBS 〈따뜻한 말 한마디〉이다.

〈애인〉의 운오와 여경, 〈푸른 안개〉의 성재와 신우, 〈내조의 여왕〉의 지애와 태준, 달수와 소현, 그리고 〈사랑을 믿어요〉의 혜진과 승우,

〈따뜻한 말 한마디〉의 은진과 재학은 우정과 사랑의 중간 즈음에서 서로에 대한 애뜻한 마음을 갖는 관계다. 이들은 각자의 가정을 깨고 소유하려는 욕구보다는, 가정이 있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각자의 위치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다.

다섯 편의 드라마 중에는 이 사랑을 계기로 가정에 다시 충실해진다 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다음에 제시하는 (4)항과 공통된 부분이 있지만, 여기에서의 혼외관계가 가정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기제라는 무게보다는 이들의 로맨스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항목으로 배치하였다.

통상적인 관점에서 혼외관계라면 육체적 관계나 배우자에 대한 배신 등이 떠오르지만, 이상의 드라마는 이성 간의 만남을 최대한 정서적 교감으로 한정하고 육체적 관계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즉, 여기서 보여 주고자 하는 혼외관계는 무기력해지고 일상화된 가정생활에 삶의 활력을 주는 것 또는 잃어버린 자신의 여성성/남성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사랑은 결혼 여부를 떠난 사적인 감정이며, 동화적 관계로 미화됨으로써 긍정적으로 이미지화 되어 있고, 가정 유지의 의무나 가정 파괴의 의미가 약화되어 있다. 따라서 시청자에게 결혼 밖에서의 사랑에 대한 판타지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4) 가정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기제

혼외관계를 통해 가정이 파괴되거나 파괴될 뻔한 과정을 통해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경우다. 이에 해당하는 드라마는 KBS2 〈장밋빛 인생〉·〈소문난 칠공주〉, SBS 〈조강지처 클럽〉, KBS2 〈결혼해주세요〉이다.

〈장밋빛 인생〉의 성문, 〈소문난 칠공주〉의 덕칠, 〈조강지처 클럽〉의 원수와 기적과 나미, 〈결혼해주세요〉의 종대와 태호의 혼외관계가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모두 배우자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외부에서 만난 이성(혹은 전 연인)에게 마음의 위로를 얻으면서 사랑에 빠진다.

이들에게 있어 결혼은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생각하고 혼외관계를 통해 돌파해나가려고 한다. 또한 기존 결혼생활과 배우자에 대해 회의적이며, 혼외관계자와 결혼을 해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이들은 열정적인 사랑과 행복한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가정이 처한 현실적 문제를 구질구질하게 여기며 회피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들은 이혼을 하거나 이혼의 위기를 통해서(〈장밋빛 인생〉의 성문과 〈결혼해주세요〉의 종대는 아내의 생명의 위기를 통해서) 잃어버린, 혹은 잃어버릴 뻔했던 가정의 가치를 다시 느끼게 된다. 그 과정에서 혼외관계를 가진 인물은 반성하며 개과천선하게 되면서 캐릭터에 변화가 생긴다.

이러한 설정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극을 보는 내내 혼외관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가해자로 여기고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분노하면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되기를 기대하게 만든다. 또한 그 배우자들을 희생자로 여기고 보상을 받게 되기를 기대하게 만든다.

결말은 대체로 아내를 팔시하는 남편이 개과천선하여 가정에 화목이 돌아온다거나, 아내가 설령 이혼을 하고 사회활동을 다시 시작하더라도 새로운 남성과 새 출발을 하게 된다. 이런 결말은 다음의 (5)항과 구별되는 점으로, 어떤 식으로든 가정이 재결성되면서 여성의 주체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남녀가 결합된 부부의 모습을 정상적인 것으로 의미화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혼외관계는 가정을 파괴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되는 한편, 존재를 무시당한 여성(또는 남성)이 어리석은 남편(또는 아내)을 떠나 더 나은 사람을 만나게 하는 긍정적 기제로 의미화되기도 한다.

(5) 여성/아내의 각성 기제

이에 해당하는 드라마는 KBS2 <푸른 안개>, MBC <위기의 남자>, KBS2 <애정의 조건> · <두 번째 프리포즈> · <부모님전상서> · <넝쿨째 굴러온 당신> · <왕가네 식구들>이다. <푸른 안개>의 경주, <위기의 남자>의 금희, <애정의 조건>의 금파, <두 번째 프리포즈>의 미영, <부모님전상서>의 성실, <넝쿨째 굴러온 당신>의 일숙, <왕가네 식구들>의 수박의 경우 남편 혹은 자신의 혼외관계를 계기로 인격적 · 사회적으로 성장을 시작하게 된다.

<푸른 안개>의 경주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기업을 남편 성재에게 맡긴 채 행복하게 살아 왔지만, 경영에 대한 부담감과 자아를 잃은 가정 생활을 하던 성재는 젊은 신우를 만난 뒤 가정과 재력 모든 것을 포기하기에 이른다. 경주는 결국 남편의 허무함을 이해하고 이혼을 선택하며 훌륭히 가정과 사업을 이끌어가게 된다. <위기의 남자>의 금희는 경쟁적인 사회활동과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버거워한 남편 동주가 귀농을 결심하자 기러기 가족이 되어 서울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그러다 동주에게 첫사랑 연지가 찾아오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금희는 출판사 사장 준하와의 사랑이 시작된다. 결국 금희는 준하와 결별하고 동주와도 이혼 후 유명한 작가로 성장하게 된다. <애정의 조건>의 금파는 변호사 남편의 그늘 아래 화목한 가정을 일궜지만,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자제력을 잃고 남자 동창에게 의지하다 불륜으로 이혼을 당하면서 홀로서기를 시작한다. <두 번째 프리포즈>의 미영도 오랜 교제 끝에 결혼한 착하고 성실한 남편에게 진짜 사랑이 찾아오면서 이혼을 당한 뒤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부모님전상서>의 성실은 자폐아 아들로 인해서 남편에게 폭력과 외도를 당한 끝에 이혼하여 독립한다. <넝쿨째 굴러온 당신>의 일숙은 남편 남구에게 평소 무시당하다가, 남구가 경제력을 갖춘 여자를 만나면서 버림받는다. 세상물정 모르던 일숙은 윤빈을 만나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이후 윤빈의

고백에도 독립적으로 살 것을 결심한다. <왕가네 식구들>의 수박은 남편의 사업이 기울면서 남편과 쉽게 이혼하고 바람을 피운 남자와 새 출발을 꿈꾸는 등 죄층우물을 벌인다. 하지만 결국 남편의 새 출발을 응원하고 독립에 이른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여성들은 모두 이혼녀로서 사회생활을 하며 고난을 겪은 끝에 크건 작건 성취와 성공을 이루게 되고, 더는 남편과 남성의 그늘에 안주하지 않는 여성이 된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여기에서 혼외관계는 기본적으로는 부정적인 것으로 이미지화되지만 한편으로는 여성이 각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제로서도 작용한다.

2) 계열체 분석: TV 드라마 속 등장인물의 의미

혼외관계를 중심으로 계열체 분석을 한 결과, 이상의 드라마에서 등장인물이 함축하는 의미는 크게 ① 남성 대 여성, ② 아내 대 여자로 구분할 수 있었다.

(1) 남성 대 여성

각 드라마에서 남성과 여성이 보이는 특징을 살펴보면, 크게 혼외관계를 통한 남녀관계와 부부로서의 관계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 희생적인 남성과 자기주장이 강한 여성

이 경우는 혼외관계를 통한 남녀관계로, 여성의 의사가 더 강하며 남성들은 거기에 최대한 맞춰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

여기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폭풍의 계절>의 홍주 그리고 그의 남자들인 성혁과 현우, <아들의 여자>의 채원과 그의 남자들인 태욱과 민욱, <푸른 안개>의 신우와 성재, <위기의 남자>의 연지, 금희와 그의 남자들

그림 3. 남성 대 여성 이항대립

남성	VS	여성
희생적인 남성 여성을 도와주는 남성 사랑에 눈이 먼 남성 보상심리가 있는 남성		자기주장이 강한 여성 홀로 좌충우돌하는 여성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여성 희생만 하는 여성

인 동주와 준하, <두 번째 프리포즈>의 민석과 연정, <장밋빛 인생>의 성문과 미자, <소문난 칠공주>의 수한과 덕칠, <내 남자의 여자>의 준표와 화영, <조강지처 클럽>의 길억과 나미, <아내의 유혹>의 교빈과 애리, <내조의 여왕>의 달수와 소현, <제빵왕 김탁구>의 인숙과 승재, <사랑을 믿어요>의 혜진과 그의 남자들인 동훈과 승우, <오작교 형제들>의 윤숙과 김 실장, <내 딸, 금사월>의 득예와 민호의 관계를 예로 들 수 있다.

혼외관계를 갖는 여성의 경우 그 캐릭터는 여성적 매력을 갖고 있으며, 자기 입장에서 사랑을 해석하는 이기심을 가지고 있고 본인의 감정에 충실하고 적극적으로 삶을 사는 여자들이다. 한편 남성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의 복수, 욕망까지도 맞춰 주는 희생적 사랑의 결과 배우자와 이혼까지도 불사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대립을 통해서 혼외관계에서 남녀의 사랑은 어른으로서 성숙되지 못한 감정적인 것이며, 여성의 사랑은 열정적이며 이기적인 것이고 남성의 사랑은 순수하고 희생적인 것으로, 또한 여성은 남성을 유혹하는 존재이며 남성은 그 유혹에 무력한 존재로 이미지화 된다.

② 여성을 도와주는 남성과 홀로 좌충우돌하는 여성

이 경우는 혼외관계를 통한 남녀관계 또는 혼외관계로 인해 힘든 여성을 상대로 하는 남녀관계이다. 여성의 입장이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홀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런 여성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남성은 항상 곁에서 지켜 주고 보살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이 중 혼외관계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애인>의 은오와 여경, <위기의 남자>의 금희와 준하, <두 번째 프리포즈>의 미영과 경수, <장밋빛 인생>의 성문과 미자, <조강지처 클럽>의 화신과 세주, <내조의 여왕>의 지애와 태준, <따뜻한 말 한마디>의 재학과 은진이다. 그리고 혼외관계로 힘든 여성과의 남녀관계는 <푸른 안개>의 신우와 민규, <장밋빛 인생>의 영이와 박사, <아내의 유혹>의 은재와 건우, <넝쿨째 굴러온 당신>의 일숙과 윤빈이다.

이 관계가 ① 희생적인 남성과 자기주장이 강한 여성의 상황과 다른 점은 여성이 자기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전혀 없기 때문에 홀로 버거워하고 있으며, 따라서 남성의 도움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하는 관계라는 것이다. 이때 여성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남성의 입장에서 볼 때 여성성이 최대한 어필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 캐릭터 자신은 그런 모습을 표출하려하지 않더라도, 드라마 화면 상 그녀들은 남성의 도움을 받기 전보다 훨씬 아름답게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대립을 통해서 혼외관계에서의 남녀의 사랑은 순수하기만한 것으로, 또한 여성은 수동적이고 유약하며 남성은 주체적이며 유능한 존재로 이미지화 된다.

③ 사랑에 눈이 먼 남성과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여성

이 경우는 부부로서의 관계로, 여기에 등장하는 아내는 남성의 외도에 저항하면서 어떻게든 가정으로 남편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애를 쓴다.

이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폭풍의 계절>의 현우와 진희, <아들의 여자>의 태욱과 숙향, <애인>의 은오와 명애, <푸른 안개>의 성재와 경주, <위기의 남자>의 동주와 금희, 준하와 나미, <애정의 조건>의 정한과 금

파, 〈두 번째 프리포즈〉의 민석과 미영, 〈장밋빛 인생〉의 성문과 순이, 정도와 장미, 〈내 남자의 여자〉의 준표와 지수, 〈조강지처 클럽〉의 원수와 화신, 〈아내의 유혹〉의 교빈과 은재, 〈결혼해주세요〉의 종대와 순옥, 태호와 정임, 〈넝쿨째 굴러온 당신〉의 남구와 일숙, 〈왕가네 식구들〉의 세달과 호박, 〈따뜻한 말 한마디〉의 재학과 미경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정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남편은 대체로 평소 가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없고, 혹여 화목해 보이는 경우도 아내와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상대 여성과의 관계를 통해 가정에서 얻지 못한 사랑과 충족을 얻는데,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의 결여점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갈등에 휩싸인다. 이러한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이상 거론한 15개의 드라마에 나오는 18쌍의 부부 중 가정이 유지된 경우는 6쌍뿐이다.

이러한 대립을 통해서 남편은 성숙하지 못한 존재이자 소년 또는 아들로, 아내는 성숙한 존재이자 어머니로 이미지화된다.

④ 보상심리가 있는 남성과 희생만 하는 여성

이 경우도 부부로서의 관계로, 여기에 등장하는 남편은 결혼을 통해 많은 것을 희생했다고 생각하고 아내와 가정을 통해 그 희생을 보상받길 원한다.

이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애인〉의 우혁과 여경, 〈두 번째 프리포즈〉의 민석과 미영, 〈부모님전상서〉의 창수와 성실, 〈장밋빛 인생〉의 성문과 순이, 〈조강지처 클럽〉의 복수와 기적, 〈아내의 유혹〉의 교빈과 은재, 〈결혼해주세요〉의 태호와 정임, 〈넝쿨째 굴러온 당신〉의 남구와 일숙이 여기에 해당한다.

아내의 캐릭터는 대체로 전업주부로서 가정의 울타리에 속해 있으며 여유스럽고 내향적이다. 그런데 남편의 경우 사회적·경제적 성공의 욕망이 강해서 아내가 보다 더 자신을 뒷받침해 주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내에게 폭언과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혼외관계를 저지르고도 뻔뻔하다.

이러한 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정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부부의 관계는 남편에게 권력이 주어진 상태이다. 남편은 경제적 능력을 남편의 역할이자 권리로 생각하고 자신이 부양하는 아내를 배우자가 아니라 피부양자로서만 바라본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권위나 경제권, 가정이라는 울타리에 예속되어 자신의 주체를 포기하고 참고 견디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대립을 통해서 남편은 이기적인 가해자이며 파렴치한으로, 아내는 피해자이며 동정의 대상으로 이미지화된다.

(2) 아내 대 여성

각 드라마는 대체로 남편을 중심으로 아내와 내연녀의 삼각관계가 구성되기 때문에, 아내와 내연녀의 캐릭터는 상당히 차별화되어 있다. 따라서 여성 등장인물들은 아내와 여성으로 구별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 희생적인 아내와 자기주장이 강한 여성

각 드라마에서 아내는 남편의 무시나 괘씸에도 불구하고 시댁 또는 가정에 충실하게 매진하며 ‘가정을 중심으로’ 살아간다. 때로는 궁상맞을 정도로 자기를 꾸미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서는 10원 한 장 사용하지 않기도 한다(〈장밋빛 인생〉 순이, 〈결혼해주세요〉 순옥). 따라서 남성이 혼외관계 또는 이혼 요구를 할 때 이들은 매달린다.

이에 비해서 아내의 위치를 뒤로 하고 여성성을 표방하는 여성들은 자신의 주의주장이 확실하고 ‘자기 위주의 삶’을 살고 있으며,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다(〈폭풍의 계절〉 홍주, 〈아들의 유혹〉 채원, 〈내 남자의 여자〉 화영).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지 알기 때문에 남성에게 대해서

그림 4. 아내 대 여성 이항대립

<p>아내</p> <p>희생적인 아내 세상 물정에 어두운 가정주부 여성성을 포기한 아내</p>	<p>VS</p>	<p>여성</p> <p>자기주장이 강한 여성 세련된 커리어우먼 여성성을 어필하는 내연녀</p>
---	-----------	---

도 확실하게 이혼할 것을 요구한다(〈장밋빛 인생〉 미자, 〈결혼해주세요〉 서영). 남성을 위해 아내처럼 미안해하거나 희생하지도 않으며, 만약 희생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자신의 정확한 계산에 따른 것이다(〈아내의 유혹〉 애리). 그리고 결국 남성과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자신의 선에서 먼저 이별을 통보한다.

이러한 대답을 통해서 아내는 착한 캐릭터로 피해자의 이미지가, 혼외관계의 주체가 되는 여자는 이기적인 캐릭터로 가해자의 이미지가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세상 물정에 어두운 가정주부와 세련된 커리어우먼

많은 TV 드라마가 전업주부와 일 하는 여지를 적대 관계에 놓고, 집에 있는 아내에게 권태와 불만을 느껴 일하는 여성과 사귀는 남편의 스토리를 그리기 때문에 문제시되어 왔다(이무경, 1996. 11. 6). 이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인물들이 〈장밋빛 인생〉의 순이와 영이, 〈두 번째 프리포즈〉의 미영과 연정, 〈아내의 유혹〉의 은재와 애리다.

각 드라마에서는 남편의 월급을 가지고 화목하게 사는 가정주부를 세상 물정이나 사회 분위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그린다. 따라서 가정주부는 남편의 보호 아래 있는 수동적 존재이기도 하다. 세상 편하게 살았던 이들은 이혼 후(또는 이혼 결심 후)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익숙지 않은 격한 경쟁사회에 내몰린 아내는 온갖 부끄러운 좌충우돌로

능력의 바닥을 경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가정주부의 경우 이혼녀로서의 삶이 평탄치 않음을 보여 주고 남편에 의해 유지되는 가정이라는 울타리의 안정성을 역설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사회 속에서 치열하게 남성과 경쟁하며 급여를 받는 커리어우먼은 남성의 격려를 발판으로 성장한다. 그러므로 이들이 남성을 쟁취하려는 이유는 남성의 격려를 지속적으로 받아 성장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세련된 옷차림의 커리어우먼은 사리판단이 확실하고 삶에 있어서 주체적이며 업무에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는다. 커리어우먼이 요구하는 남성의 울타리는 안정된 경제력과 평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의 내적 에너지를 채워주는 역할로서의 울타리이다. 이상으로 볼 때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묘사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대립에서 가정주부를 통해서는 수동적이고 무능력한 동경의 대상으로, 커리어우먼은 주체적이고 긍정적인 동경의 대상으로 이미지화 된다.

③ 여성성을 포기한 아내와 여성성을 어필하는 내연녀

이는 연구 대상으로 삼은 대다수의 드라마에서 혼외관계를 통해 삼각관계에 처한 아내와 내연녀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습이다.

대체로 드라마 속 아내는 남편의 월급으로 안정된 가정을 가꾸고 남편에게 내조하는 것에 열중하는 한편, 경제적 이유, 아내로서의 역할, 안정된 성적 독점권 등으로 인하여 여성성을 희생하거나 포기한다. 그러다 아내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불안해하며, 그때부터 가정의 울타리는 산산이 부서진다. 여기서 아내가 제기하는 부부 갈등의 핵심은 경제적 문제·성 역할의 문제가 아니라 성적 독점권에 있다. 즉, 아내는 배우자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성적 권리 보장과 가정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가정 내에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이유로 여성성을 포기하면서도 남편에게 여성성

을 인정받고자 하는 모순된 양상을 보인다.⁶⁾

반면, 내연녀의 경우는 남성에게 자신의 여성적 매력을 어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남성의 시각에서도 아내와 구별되고 있다. 남성들은 아내에게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주로 요구하고 아내의 성적 매력은 무시한다. 하지만 내연녀에게는 성적 매력을 인정하고 어떤 역할과 의무를 요구하지 않는다. 드라마상에서 내연녀들은 옷차림이나 화장, 말투 등에서 세련되거나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드러냄으로써 아내와 구분된다. 내연녀가 기혼 상태일 경우 이들이 가정 내 아내일 때는 여성성이 무시당하지만, 가정 밖과 혼외관계자와의 관계에서는 여성성을 인정받는다. 내연녀는 상대 남성에게 이혼·결혼·경제력 등을 요구하기도 하고, 반면에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어느 경우이든지 내연녀는 남성에게 여성성을 인정받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성의 인정이 그들의 혼외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내와 내연녀의 관계에서는 약간의 신데렐라 플롯과 권선징악의 코드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경쟁사회로 내동댕이쳐진 아내에게 조력자 남성이 등장하고 그의 사랑과 원조로 아내는 재기에 성공하게 된다. 변화한 아내는 새로운 남성과의 사랑을 성취하고 결혼에 이르기도 하고, 여성성을 회복한 아내의 모습에 매력을 느낀 남편이 반성 끝에 다시 아내와 재결합하기도 한다. 한편, 내연녀의 경우 혼외관계를 가진 것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 설령 다른 가정의 남편을 제 것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결국 남성이 더 이상 여성적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헤어지거나 불행해진다는 결말이 펼쳐진다.

6) <장밋빛 인생>의 순이나 <왕가네 식구들>의 호박, <아내의 유혹> 은재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 공상맛을 정도의 행색을 하고 있다. 한편 <폭풍의 계절>, <아내의 여자>, <애인>, <푸른 안개>, <내 남자의 여자>, <내조의 여왕>, <따뜻한 말 한마디> 등에 나오는 아내는 충분히 여성적 매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스스로는 기혼 여성으로서 절제하거나 희생하고 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남편이 혼외관계 대상과 잠자리를 가졌는지를 확인하며 절망한다.

따라서 이러한 대립관계를 통해 아내는 피해자이자 응원의 대상으로, 내연녀는 이기적이고 욕망의 화신으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대상으로 이미지화 된다.

5. 결론

1) 1990년대 이후 혼외관계를 다룬 TV 드라마의 경향성 1: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가치가 충돌하는 가정과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개인의 묘사

TV 드라마가 재현하는 혼외관계와 가정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혼외관계를 갖는 등장인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남성과 성적 매력이 있는 여성이라는 설정이 기본적인데, 간혹 남성이 경제력이 없을 경우라면 여성이 경제력을 갖추는데, 이는 혼외관계에서 경제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의미한다.⁷⁾

이들의 가정은 (화목해 보일지라도) 정서적 교류가 없는 의례적 관계를 갖는 부부로 구성되어있다. 즉, 혼외관계는 가정을 파괴하는 기제라기보다는 균열이 있는 관계의 결과물이자 가정을 책임지는 성인 남녀가 그 책임과 의무를 배제한 채 가정 내에서 느낀 부족함을 밖에서 채워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혼외관계를 저지르는 사람은 가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망기한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가해자로 묘사되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되면서 혼외관계는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된다. 남성의 혼외관계는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아내로 인해서 구원받는 장치가 있지만 여성의 혼외관계는 남편의 이해와 관용이 작용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서, 남성과

7) 본 연구의 연구 대상 중 순수한 사랑으로 포장된 혼외관계를 그린 총 5편의 드라마에서도 모두 남성의 경제력이 바탕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사랑에 경제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지의 의문이다.

여성의 혼외관계를 평가하는 잣대가 이중적임을 알 수 있었다.⁸⁾

혼외관계의 주체는 남녀 어느 쪽인지에 상관없이 부부 사이에서 대체로 남성은 가해자로 여성은 피해자로 설정되는데⁹⁾, 이는 여성이 부부 관계에서 충분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처지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아내와 내연녀의 구분에서는 아내가 피해자고 내연녀가 가해자로 설정된다. 즉, 혼외관계의 갈등 구도에서 사회적 여건 등으로 이혼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아내는 남편과도 다투고 내연녀와도 싸워야 하는 이중고의 피해자로 설정됨으로써, 극 중에서 가장 힘든 위치에 처해진다. 이러한 삼각 구도를 통해서 볼 때, 남편이 아내와의 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것이 현실임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 가정 내에서 ‘남편과 남성’의 구분이 모호하다. 즉, 남성이 남편/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¹⁰⁾ 그 원인으로는 아내는 자신의 여성성을 포기/희생하더

8) 남편의 관용과 이해, 즉 합리적 사랑이 실천된 경우는 <따뜻한 말 한마디>의 성수-은진 부부 정도다. 그 외의 경우는 여성의 혼외관계는 그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넘어가거나(<애인>), 관계의 단절(<위기의 남자> · <소문난 칠공주>), 생활의 파탄(<오작교 형제들> · <왕가네 식구들>), 철저한 외면과 무시(<제빵왕, 김탁구>) 등으로 가정 유지가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었다.

9) 여성이 혼외관계의 주체라 하더라도, 부부 관계에서 정서적 교류가 차단되고 남편에게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아내라는 입장에서 시작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여성의 혼외관계는 대체로 불행한 결혼생활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이 가해자로 설정되어 있다. 그 예로는 <애인>의 여경이나 <제빵왕, 김탁구>의 인숙을 들 수 있다. 여경의 남편 우혁은 사회적 성취를 위해 상사와 부정한 업무를 강행하면서 여경의 내조 부재를 탓한다. 인숙의 남편 일중은 시종 사랑 없는 결혼을 핑계로 냉랭한 태도를 취하다 가정부와 혼외관계를 갖고, 이후로도 아내와는 형식적 가족을 유지한다. 이로 인해 여경과 인숙의 혼외관계는 부정한 것이면서도 이해할 여지가 있는 것이 된다.

10) 예외적으로 <왕가네 식구들>에서 아내 호박이 경제활동을 하고 남편 세달이 전업주부가 되는 등 남편으로서 가정에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본 연구가 혼외관계를 소재로 하는 드라마를 연구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가족/흠드라마에서는 볼 수 있는 남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남성 혹은 남성성이 거세된 남편은 간혹 가족 중에 등장하기도 하지만 연구 대상으로 살펴본 부부 중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라도 남편에게 남성성을 희생하거나 포기하기를 요구하지 않는 점을 들 수 있다. 오히려 아내는 남편의 성적 매력 또는 성적 능력을 존중하고 독점하길 원하고, 그것이 가정 밖에서 인정받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다음으로는 혼외관계로 인한 삼각관계에서 대부분의 경우 가운데에 놓인 것은 남성이며, '남편과 내연남'의 갈등이 나오는 드라마는 드물기 때문일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안정적으로 보이더라도 이미 의례적 관계의 부부이기에 남편이 가정 내 역할을 등한시하는 것으로 설정되어서일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드라마에서 남편들은 가정에서의 역할이 거의 없다는 점이 남성에게서 '남편과 남성'이라는 구분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혼외관계 갈등 구도에서 남성의 경우 '남편과 남성'이라는 구분이 불분명한 것에 비해 여성의 경우는 '아내와 여성'이라는 뚜렷한 구분점이 생긴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이 구분점은 남편이 아내와 여성을 바라볼 때 아내에게는 여성성보다는 역할을, 여성에게는 성적 매력을 요구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여성 스스로도 아내로서는 여성을 포기하거나 희생하고, 내연녀로서는 여성성을 어필한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여성은 커리어우먼 등으로 세련되고 유능하며 현대적 가치인 주체적 인물로 그려지는 한편, 아내는 혼외관계를 가진 남편에 대해 성적 독점권을 주장하며 정상 가족을 옹호하는 인물로 그려짐으로써 오늘날 가장 전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이상을 검토해 보았을 때 오늘날 젠더 평등 담론과 그에 근거한 부부애, 가정적인 아버지상과 아내의 지위 상승 등의 사회적 인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혼 여성은 현실에서 가장 낮은 지위에 배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기혼 여성 중에서 가정주부인 아내가 가정과 사회 내에서 지위가 가장 낮을 뿐 아니라 가장 전통적인 역할에 갇혀 있는 것이다. 더구나 혼외관계에 대해서도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가해지는 도덕적 잣

대가 엄격한데, 오늘날 남성과 평등하게 교육받아 온 여성임에도 사회적
 으로나 가정 내에서 활동에 제약이 많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아내로서는
 여성성을 추구하면서도 희생·포기해야 하고, 혼외관계에서도 여성성
 의 문제로 갈등을 겪어야 한다. 따라서 여성이 결혼을 통해 정체성의 혼
 란을 겪을 가능성이 남성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부 갈등
 의 결과물로서의 혼외관계라는 관점에서 볼 때 낭만적 사랑에 의해 형성
 된 가정에서 오히려 부부 간의 친밀성과 감정 교류는 사라지고 더욱욱
 제도적 가족에 편입하여 각자의 역할 수행에 충실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는 점에서, 가정은 모순된 가치가 부딪히는 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TV 드라마 속 아내와 가정의 모습에서 가부장제에 기반을 둔 '전
 통적 가치'와 낭만적 사랑에 기반을 둔 '현대적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2) 1990년대 이후 혼외관계를 다룬 TV 드라마의 경향성 2: 개인의 욕망 강 화와 가정 의미의 약화

혼외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개인의 욕망은 애정·돈·출세 또는 개인의
 삶에 대한 존중으로 나뉠 수 있다. 드라마 속 인물들은 처음부터 가정의
 포기를 말하는 사람은 없다. 등장인물들은 행복을 추구하며 행복의 조건
 으로 가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그 행복한 가정의 존립의 근거를 전
 자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것에, 후자는 형식적 가정생활에 대해
 회의하며 배우자와의 정서적 교감과 자아의 주체성에 의미를 두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경제적 부양을 가장의 큰 덕목으로 생각하는 남편은 가족을 피
 부양자로 생각하고 자신이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남
 편은 더 나은 출세를 위해 더 나은 배우자를 만났었더라면, 또는 처가가
 자신의 출세를 위한 뒷받침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
 지 생각하지 않는 남편의 경우도 자신의 가정 내 역할은 경제적 부양이

라고 한정짓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남편의 모습은 개인의 욕망 중에서 물질적인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실적인 이익과 물질적 욕망을 추구하고 소비하면서 내적 가치를 잃는 오늘날 소비 사회의 모습을 반영한다 할 수 있다.

혼외관계에서는 개인적 충족만이 있을 뿐 자녀 등 가족의 의미는 배제되어 있다. 혼외관계를 갖는 인물들은 유혹에 무력하거나 소년·소녀의 감성을 유지하는 모습, 지나치게 현실적이고 물질적 욕구를 갈구하는 모습, 주변 상황을 무시한 채 자기 위주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인다. 즉, 가정 내 부부의 문제를 가정에서 해결하려는 성인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그 혼외관계는 성숙되지 못한 감정적인 것, 열정적이고 이기적인 것, 순수한 것으로 의미화 된다. 또한 혼외관계를 계기로 여성이 자아를 회복하고 주체성을 확립해 가는 과정에도 새로운 이성에게서 여성성을 인정받는 것이 강조될 뿐, 가족의 의미는 약화되어 있다. 이는 과거 1980년대까지의 영상텍스트에서는 모성이데올로기나 가정과 사회로부터의 축출 등으로 여성의 혼외관계에 제약을 가하고(임인숙, 2003, 19-23쪽), 사생아로 인해서 가족의 갈등을 야기함으로써 남성으로 하여금 혼외관계의 대가를 치르도록 했다면(황혜진, 2005, 94쪽), 1990년대 이후 2010년대로 오면서 TV 드라마에서는 가족에 대한 죄책감·자녀에 대한 책임 등과 같은 가정의 의미나 무게가 점차 약화되어가고 있다(김지영·김동규, 2006, 71쪽)는 선행 연구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이렇게 TV 드라마가 재현하는 혼외관계와 그를 둘러싼 욕망과 행복 추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오늘날에는 과거 우리의 부모 세대처럼 가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삶의 무게에 순순히 자신을 내려놓기를 거부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한 가정 내에 물질적 충족과 개인의 삶을 가정 내에서 최우선 가치로 상정하고자 하는 사람과 절대적으로 가정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는 오늘날의 우리 가정은 개인의 욕망을 중시하는 현대적 가치와 정형화된 가족이라는 전통적 가치가 충돌하는 장

임을 알 수 있다.¹¹⁾ 따라서 가치관에서 갈등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부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 갈등과 혼외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TV 드라마는 보여 주고 있다.

3) 1990년대 이후 혼외관계를 다룬 TV 드라마의 경향성 3: 전형적 가족 형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혼외관계에 대한 부정적 의미의 약화

TV 드라마는 혼외관계는 부정적인 것이고 가정은 유지해야 하는 것이자 개인의 행복 추구의 장이라는 사회적 통념이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임을 보여 준다. 한편, 새로운 드라마 패턴을 통해 오늘날의 개인이 혼외관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정체성의 혼란에 대해 설명한다.

TV 드라마 속에서 혼외관계가 벌어지는 부부는 정서적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의례적 성 역할을 다할 뿐이다.¹²⁾ 이 경우 아내에게 있어서 가정 존립의 기준은 경제권이나 부부 권력이 아니라 남편에 대한 성적 독점권에 있다. 따라서 남편이 혼외관계를 통해 아내가 요구하는 성적 독점권을 외부의 이성과 나눌 때 아내는 갈등을 겪는다.

TV 드라마는 아내가 고통을 받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가진 전형적 가족 형태, 즉 정상 가족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려준다. 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는 이성애 핵가족을 정상 가족으로 규정해 왔다(박혜경, 2011, 84쪽). 즉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 존립의 기준이 배타적 성관계를 유지하는 이성애적 일부일처제가 우리 사회 결혼제도의 핵심이며, 서구의 부부 관계에서 애정 표현이 중요한 요소인 것과 달리 한국의 부부 관계에서는 상호 신뢰와 이해가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11) 올리히 백과 엘리자베트 벡-게른샤임의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1990/1997)에서는 이를 낭만적 사랑의 가치와 현대 사회의 개인화의 문제로 설명하였다.

12) 이는 나윤경 외(2009)의 연구 결과, 혼외관계를 갖는 사람들의 실제 부부 관계로도 드러나는 바다. 이러한 가정은 친밀감은 거세되고 경제적 유대감만으로 유지되는 '경제적 공동체'로서만 존재한다.

(나윤경 외, 2009, 401쪽).

혼외관계를 욕망을 표현하는 것, 가정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기제, 여성/아내의 각성 기제로 설정한 TV 드라마의 경우는 과거 드라마가 보이는 전형적 패턴을 보였다. 즉, 남녀로 구성된 가정이 정상적이고 이 가정의 존립을 위협하는 혼외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으로 묘사하였다. 한편, 혼외관계를 아름다운 사랑·우정 또는 복수의 수단으로 설정한 TV 드라마는 기존과 차별화된 특징을 보였다. 새로운 드라마 패턴은 혼외관계를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적 감정의 문제로 보거나 이유 있는 복수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으로 인하여 혼외관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약화되고 가치중립적이거나 긍정적 이미지가 추가되었으며, 혼외관계로 인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전형적인 패턴과 달리 불분명해지거나 심지어 전복되는 경우도 있었다.

6. 요약 및 함의

1) 요약: 모순된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

본 연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TV 드라마가 사회상을 반영해 왔으며 특히 혼외관계를 다룬 TV 드라마가 시대적 경향성을 보였다는 것에 주목하고, 1990년대 이후 2015년까지 23편의 혼외관계를 다룬 TV 드라마를 통해서 오늘날의 드라마가 드러내는 혼외관계의 경향성, 가정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았다.

앞서 제시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혼외관계·부부·가정의 각 주제별로 반복적으로 도출되는 설명들이 있는데, 이 설명들이 바로 1990년대 이후의 혼외관계를 주제로 한 TV 드라마가 재현하는 일종의 서사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먼저, 혼외관계는 경제력이 바탕이 된 관계로 설정되며 가정에 대한

표 3. TV 드라마가 재현하는 혼외관계 · 부부 · 가정의 의미

드라마 속 재현 모습		도출되는 의미	
혼외 관계	경제력을 바탕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질적인 것을 중시하는 소비사회 • 사생활에 대해 중시하는 분위기 • 혼외관계에 대한 부정적 • 남성 중심의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 가정을 보편적인 것으로 유지하려함 •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물질을 중시하는 분위기
	가족의 의미가 배제/약화		
	가해자인 남편과 피해자인 아내/여성		
	남녀에 대한 이중 잣대		
부부	의례적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 부부 관계에 대해 회의적 • 사회생활을 하는 남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 전통적 역할의 아내 및 주제적인 삶에 대한 이중적 시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욕망 · 행복추구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긍정하고 지양해야 할 것으로 생각 • 개인의 욕망 · 행복추구가 가정 내에서 점차 갈등의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음
	남편 우위의 권력 관계		
	전통적 가치를 수호하는 아내		
	욕망에 충실한 남편		
가정	유지되어야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에 대한 이중적 시각 	
	행복 추구의 장		
	갈등의 장		

책임의 무게를 크게 생각하지 않는 등장인물로 인해 가정 내 가족의 의미가 배제/약화되어간다는 것을 보여 준다.¹³⁾ 혼외관계에서 남편 대 아내 또는 여성의 구도에서 기본적으로 남성은 가해자이고 여성은 피해자로 상정된다. 그리고 혼외관계를 저지른 남녀가 그 대가를 치를 때 남성보다 여성이 가정 및 사회적으로 더 큰 비난을 받으며 기혼 여성일 경우 남편의 관용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남녀에 대한 도덕적 잣대가 이중적임을 보여 준다.

이들 드라마 속 부부의 모습은 정서적 교류가 단절되었으며 성 역할이 구분된 의례적 관계이다. 부부의 권력 관계는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

13) 과거 TV 드라마에서는 혼외관계로 인한 갈등이 사생이나 처첩 갈등 등으로 가족의 의미와 결부되어 있었다면, 오늘날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자녀와 부모 등 가족과 결부 짓지 않은 채 철저히 개인적인 문제로 여기고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에만 초점을 맞춘다.

을 하는 남편이 아내보다 우위를 점한다. 아내는 혼외관계라는 갈등을 통해 배타적 성관계 및 일부일처제라는 전통적 가치를 수호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그리고 남편은 가정 내에서 경제적 부양자로서의 역할에 매몰되어 아내와의 역할에 선을 긋는 한편, 배타적 성관계를 무시함으로써 전통적 가정에 대해 양가적인 입장을 취한다. 또한 경제력을 통해 권위를 존중받으며 더 큰 경제력과 애정·권력 등을 추구함으로써 욕망에 충실한(부정적 의미에서의) 현대적 가치를 상징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나아가 가정은 드라마 속 혼외관계가 갈등의 핵으로 떠올랐을 때 여전히 수호해야 할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강조됨으로써 전통적인 가족주의가 기저에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혼외관계의 모든 등장인물은 처음부터 이혼을 고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인 행복 추구의 장으로 기능함을 보여 준다. 하지만 이들 또한 전통적 가정 수호와 현대적 개인의 욕망으로 갈등한다는 점에서 모순된 가치가 충돌하는 갈등의 장이기도 하다.

2) 연구의 함의

본 연구는 혼외관계를 다룬 TV 드라마에서 혼외관계가 어떻게 의미화되고 있으며 남녀 관계와 부부 성 역할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사회의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수용이 어떠한지를 확인해 보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전 시기와 달리 최근의 TV 드라마에서는 혼외관계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한편, 혼외관계를 아름다운 사랑·우정 또는 복수의 수단으로 설정하는 새로운 패턴을 통해 혼외관계에 대하여 가치중립적이거나 긍정적 이미지가 추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혼외관계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행위라고 규정할 수만은 없고, 사적 감정이고 납득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확보하였다. 이는 이전시기의 TV 드라마에서 혼외관계를 부정적으로만 묘사했던 것과는 차별화된 것으로, 가정을 이뤄야만 사회 구성

원이 될 수 있다는 과거의 개념이 오늘날 더 이상 강하지 않고 개인으로서도 경제활동을 통해 충분히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결혼과 이혼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개념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실을 재현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혼외관계를 다룬 TV 드라마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하는 정상 가족을 지향하고 옹호하면서도, 가정이란 남녀 간 낭만적 사랑에 따라 형성되었음에도 제도적 가족에 편입되어 가는 등 모순된 가치가 부딪히는 장면을 지적한다. 또한 아내를 통해 가부장제에 기반을 둔 '전통적 가치'와 낭만적 사랑에 기반을 둔 '현대적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을 확인하면서 여성 정체성의 문제를, 경제적 욕망을 추구하며 혼외관계를 저지르거나 아내를 멸시하는 남성을 통해 물질적 욕구만을 추구하고 내적 가치를 잃는 소비 사회의 문제¹⁴⁾를 지적한다. TV 드라마는 등장인물과 그들의 갈등 구조를 통해, 현대적 가치인 개인적 욕망과 가정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전통적 가치가 서로 충돌하면서 혼외관계의 의미나 가정의 의미도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진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 이런 우리의 현실 전개를 미루어볼 때, 올리히 벡과 엘리자베스 벡-게른샤임(Beck & Beck-Gernsheim, 1990/1997)이 말한 것처럼, 향후 결혼과 가정, 혼외관계, 사랑 등이 그것을 선택하는 개인의 현실감과 존중감을 확립해 나가는 사회가 될지 지켜볼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TV 드라마의 시대별 경향성 도출에 중점을 둔을 본 연구는 향후 그 좋은 비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질적 분석에 중점이 있지만 특정 시대 특정의 TV 드라마가 아닌 1990년대 이후 드라마를 망라하여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질적 연구가 가진 양적 한계와 일반화의 문제를 나름 보완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TV드라마가 사회현상

14) 분석 결과 대체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경제적 욕망으로서의 혼외관계에 노출된 경우가 많았다.

에 대한 이해에 매우 유용한 연구 소재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상파 TV 드라마를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종합편성채널, 즉 종편에서 방영하는 드라마를 포함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종편의 특성상 지상파보다 혼외관계에 대한 다양하고 파격적인 소재와 전개를 다루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연구 대상을 종편 드라마까지 확대하는 것도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 문헌

- 강수진 (2001. 4. 26). 불륜이냐, 로맨스냐, 〈푸른 안개〉 게시판 찬반 격론. 〈동아일보〉. URL : <http://news.donga.com/3/all/20010425/7681330/1>
- 김선영 (2016. 10. 9). [지금 TV에선 ‘공항 가는 길’ 진화하는 불륜의 사회학. 〈경향신문〉. UR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092108025&code=990100
- 김수아 (2014). 드라마에 나타난 사랑과 분노. 〈젠더와 문화〉, 7권 1호, 133-167.
- 김승현 · 한진만 (2001). 〈한국 사회와 텔레비전 드라마〉. 서울: 한울.
- 김영성 (2015). TV 드라마에 나타난 가족 해체 위기와 치유의 미학: 2000년대 이후 불륜 드라마를 중심으로. 〈비평문학〉, 57호, 61-86
- 김지영 · 김동규 (2016). TV 드라마 속 혼외관계의 사회적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30권 5호, 39-78.
- 나윤경 · 박은실 · 강미연 · 서정미 (2009). 기혼자들의 ‘외도’를 통해서 본 한국 사회의 가족, 그 평생교육학적 의미. 〈평생교육학연구〉, 15권 4호, 378-412.
- 박정순 (1995). 〈대중매체의 기호학〉. 서울: 나남출판.
- 박진 (2003). 토도로프의 서사이론: 서사시학의 성과와 한계.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9집, 130-156.
- 박혜경 (2011). 경제 위기 시 가족주의 담론의 재구성 과 성평등 담론의 한계. 〈한국여성학〉, 27권 3호, 71-106.
- 심훈 (2005). ‘쓰나미’에 대한 한미 양국 간의 이야기 구조 서사 분석: MBC의 〈시사매거진 2580〉과 CBS의 60Minutes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9권 6호, 286-313
- 양다진 · 조희선 (2005). 기혼남녀의 혼외관계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 8권, 51-77.
- 원용진 (1997). ‘불륜’ 드라마로 읽는 사회 변화 〈모래성〉에서 〈애인〉까지. 황인성 · 원용진 (편), 〈애인:TV드라마, 문화 그리고 사회〉 (75-111쪽). 서울: 한나래.
- _____ (2000). 〈텔레비전 비평론〉. 서울: 한울.

- 원정현 (1996). 한국 사회의 가치관 변화와 TV멜로드라마의 관계 연구: '모래성'과 '애인'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무경 (1996. 11. 6). '일하는 여성과 전업주부는 적' 싸움 붙이는 드라마. <경향신문>. URL: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6110600329133001&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6-11-06&officeId=00032&pageNo=33&printNo=15929&publishType=00010>
- 이성은 (2006). 한국 기혼 남녀의 섹슈얼리티와 친밀성의 개념화, <가족과문화>, 18집 2호, 1-36.
- 이영광 (2014. 2. 25). '따뜻한 말 한마디', 불륜 이렇게도 그럴 수 있다니. <오마이뉴스>. URL: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1961805&CMPT_CD=P0001
- 이영화·이영숙 (2007). 기혼남성의 혼외관계 경험과 관련변인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6권 3호, 523~533.
- 이재경 (2004). 한국 가정은 '위기'인가? - '건강가정' 담론에 대한 비판. <한국여성학>, 20권 1호, 229~244.
- 이재경·이은아·조주은(2006). 기혼 취업여성의 일, 가족생활 변화와 한계: 계층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2권 2호, 41~79
- 임인숙 (2003). 외도영화에 재현된 여성의 욕구와 선택의 변화. <가족과 문화>, 15권 1호, 3~33.
- 정영희 (2005). <한국 사회의 변화와 텔레비전 드라마>.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정준화 (2016, 10, 13). '공항 가는 길' 김히늘 이상윤, 망봐주고 싶은 불륜이러니. <OSEN>. URL : <http://osen.mt.co.kr/article/G1110513816>
- 하계성 (2010). 남편의 외도와 여성의 관계성. <복음과 상담>, 14권, 262~282.
- 한용환 (2002). <서사 이론과 그 쟁점들>. 서울: 문예출판사.
- 함인희 (2000). 한국 가족의 여성학적 재구성: 페미니즘 가족론의 한국적 적용에 관한 성찰. <동덕여성연구>, 제5호, 39~57.
- _____ (2004). 한국부부의 성관계 - 규범적 인식과 실제 행위의 괴리. <한국사회학회>, 2004년 가을 기획 심포지움, 93~116.

- 황인성 (1996). 텔레비전 저널리즘 서사 구조의 사회적 폭력성에 대하여. <방송학연구>, 7권, 5-54.
- 황혜진 (2005). 영화로 보는 불륜의 사회학: <자유부인>에서 <바람난 가족>까지. 경기도: 살림출판사.
- Allen, R. (Eds.) (1992). *Narrative theory and television*. 김훈순 (역) (1994). <텔레비전과 현대비평>. 서울: 나남.
- Beck, U., & Beck-Gernsheim, E. (1990). *(Das)Ganz normale chaosder liebe*. Frankfurt: Suhrkamp Verlag.. 강수영 · 권기돈 · 배은경 (역) (1997).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 사랑, 결혼, 가족, 아이들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근원적 성찰>. 서울: 새물결.
- Chartman, S. (1978). *Story and discourse: 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and film*. Cornell University Press. 김경수 (역) (1999). <영화와 소설의 이야기 구조>, 서울: 민음사
- Giddens, A. (1992). *Transformation of Intimacy: Sexuality, Love and Eroticism in Modern Societies*. Polity Press. <親密性の変容: 近代社会におけるセクシュアリティ' 愛情' エロティシズム>. (松尾精文 · 松川昭子, 訳). 東京: 而立書房. (Original work published 1995).
- Glass, S., & Wright, T. L. (1992). Justifications for extramarital relationships: The association between attitudes, behaviors, and gender. *The Journal of Sex Research*, 29(3), 361-388
- Harley, W. F. (2002). *His needs her needs: Building an affair-proof marriage*. Fleming H Revell Co: Unabridged.
- Illouz, E. (2011). *Warum Liebe weh tut: Eine soziologische Erklärung*. Suhrkamp Verlag BerlinPolity. 김희상 (역) (2013). <사랑은 왜 아픈가>. 서울: 돌베개.
- Todorov, T. (1977). *The Poetics of Prose*. 신동욱 (역) (1992). <산문의 시학>. 서울: 문예출판사

투고일자: 2017년 01월 15일

심사일자: 2017년 02월 17일

게재확정일자: 2017년 02월 28일

Abstract

A Study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Represented in TV Drama : A Conflict Between Traditional Family and Modern Desire

Focusing on TV Drama Since the 1990s

Jee-Young Kim

Ph D., Dept. of Mass Communication, Konkuk University

Dong-Gyu Kim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Mass Communication & Public Relations, Konkuk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the fact that our perception on “extramarital relationships” and how it is accepted in our society have changed and sets out to specify the narrative structures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in dramas since the 1990s that deal with affairs in detail. 23 dramas were chosen carefully and their narrative structure were analyzed based on Todorov’s integrated analysis and which is based on Lévi-Strauss, C.’s binary oppositions structure.

Results found from the integrated analysis show that recent TV dramas either keep their family together or not which is based on extramarital relationships. Results also indicated that extramarital relationship is used as a device to express desire for affection, money and success, also as a mean for revenge toward betrayal. Extramarital relationship is also used find true love/friendship and the true value of family and to awake those to be women and wife.

Results of the paradigmatic analysis show that conflict between male/female, wife/woman. Extramarital relationships presented in recent TV dramas are depicted as negative from a patriarchy family which appears to be a normal family. However, a difference lies where extramarital relationships may be understandable where value neutrality and positive image is added. At the same time, family is known to be based on love however institutional aspect is also

included which is contradictory. It is also where the conflict between the “traditional value” based on patriarchy through the wife and “modern value” which is based on love. Consuming problems in society are also depicted through men who despise the wives who have extramarital relationships hoping for money that leads to the loss of internal value.

This study shows that the meaning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or family is becoming more complex and confusing as conflict occurs between the traditional and modern value and internal and financial desire. As a result, narratives in recent TV dramas reflect all these aspects.

KEYWORDS TV drama, extramarital relationships, romantic love, narrative analysis, normal family